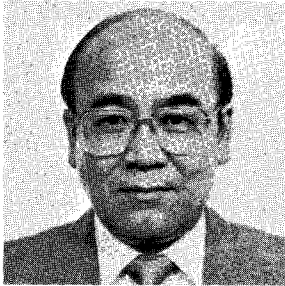


결핵성 후두염



김건열/서울대 의대 내과교수

결핵으로 인한 여러가지 합병증과 후유증의 증상이 우리 신체 여러곳에서 발병하게 된다.

이런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서 그 예방법과 치료법을 사례별로 알아본다(편집자 주)

23세 여자환자를 앞세우고 40대 후반 어머니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진찰실에 들어섰고 말없이 앉은 풀죽은 젊은 환자를 가르키며 「내 딸애가 갑자기 말을 못하고 목소리가 안나온다」는 것이었다.

목소리가 안나오는 환자를 왜 나에게 데려왔나 싶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환자의 병력을 자세히 물어본즉 국민학교 여교사인 환자가 특별한 병도 앓은 일없이 갑자기 목이 쉬고 말이 잘 안나오게 되어 학교에도 못나가고 큰일 났으니 무슨 수를 내달라는 경상도사투리의 환자 어머니의 애뜻한 호소였다.

우선 내과, 흉곽내과쪽 관점에서 모든 진찰을 끝냈으나 별로 특기할 이상이 안보였고 흉부 X-선검사나 폐기능검사에서 뚜렷한 소견을 얻지 못했었다. 그러나 한가지 유념하고 간과해서는 안될 경험이 후두결핵에 관한 옛날의 기억이었고 즉시 이비인후과진찰을 의뢰했고 후두경검사 및 조직검사끝에 후두결핵이라는 전달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후 강력한 항결핵제 치료후 일개월만에 이 환자의 목소리는 정상을 되찾을 수가 있었고, 계속된 충분기간의 항결핵요법후 완치되어 요즘도 결혼후 얻은 애기들 문제를 논해오고 있다. 나는 지금도 이 여선생님의 어머니가 데려오는 엉뚱하고 어려운 환자때문에 고역을 겪는 경우가 많지만 제 딸의 병어리를 고쳐준 신통한 흉곽내과의사라고 그 어머니는 나를 믿고 있는 듯했다.

결핵은 이미 기술된 바와 같이 우리 신체 장기중 침범 안하는 장기가 없을 정도로 모든 장기를 침범하여 질병을 일으키고 후두결핵도 드물지만 그런 증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성대(聲帶)점막이 「폴립」(Polyp)이나 점막하 염증으로 속립대 내지 콩알만한 크기의 부종성증식(浮腫性增殖) 내지는 육아종증(Granulation) 형태로 발생하는

후두결핵은 초기증상으로 음성의 변화와 쉼소리등을 일으키고 심하면 숨찬증상 등을 일으키는 병으로서 젊은 연령층에 주로 발생되고 초기에 진단하면 치료에 잘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두결핵은 초기증상으로 음성의 변화와 쉼소리등을 일으키고 심하면 숨찬증상 등을 일으키는 병으로서 젊은 연령층에 주로 발생되고 초기에 진단하면 치료에 잘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후두결핵의 진단을 확인할때까지는 내과적인 진찰과 이비인후과적인 전문적 진료과정을 밟아 성문부종증 등 유사질환 및 원인과 감별진단이 필요하고 후두경검사나 기관지내시경검사가 필요하고 상기도분비물에서의 결핵균 검사 및 조직검사가 이루어지므로서 확진이 가능하게 된다. 성대에 「폴립」증을 일으키는 결핵이외의 질환으로서는 양성섬유종, 종양, 성대과용, 혹사등에 빠른 조직증식증, 반복적인 세균감염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뚜렷한 원인을 못잡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40대이후 남성흡연자에서 성대 이상이나 쉼소리등이 나타날때는 반드시 폐암에 의한 후두신경마비증세를 생각하여야 하고 폐암진단에 대한 철저한 검색이 필요하다.

후두결핵의 치료에 대해서는 폐외결핵증의 치료에 준하게 되며 폐결핵이 초치료인 경우 6~9개월의 단기화학요법추세를 보이고 있다면 폐외결핵도 단기치

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9개월 이내로 단축하는것은 후두결핵의 경우 확실하게 정설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가 치료약제에 대한 부작용 및 다른질환의 합병증등 유무에 따라 9개월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할것이며 약제선택도 살균력을 가진 강력한 일차약제라서 초기 3개월간은 최소한도 4자병합요법을 권해야 할 것이다. 결핵 치료는 모든병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 3개월간의 치료가 중요하며 올바르게 선택된 약종류와 약 용량의 처방이라면 2~3개월이내에 대부분의 균양성환자가 음전되는 것이 초치료환자경우라고 할 수 있다.

폐외결핵치료에 대한, 그리고 후두결핵치료를 위한 「스테로이드」(부신피질)요법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은 없으나 처음부터 「스테로이드」를 쓸필요는 없고 아주 심한 호흡곤란이 동반되어 있거나 강력한 항결핵치료제 치료에 대한 반응이 없을 때는 전문의사의 판단아래 투약이 필요할 때도 있다.

수술요법에 대해서는 전에 보다는 수술적용이 적어지고 있으며 우선 일차적으로 내과적으로 6개월이상 치료하고 경과를 보는것이 원칙이며 치료에 대한 반응이 없고 성대의 결핵성병변이 크고, 음성장애의 정도가 호전이 안될때는 근치적절제술을 시행할 경우도 있다.

결핵은 수십가지의 얼굴을 가진 전신 질환이라고 표현하듯, 목소리의 변화는 발병증상으로 나타난 후두결핵환자를 소개했고 관심을 가지고 찾으면 많은 환자가 초기에 진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